

啓明大學校의 精神과 理想



金 泰 漢
(啓明大 總長)

I. 본교의 歷史와 現況

본교는 미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공동노력으로 설립되었다.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북장로교 駐韓宣敎部 대표 안두화 (Rev. E. Adams), 감부열 선교사와 최재화 목사 등 교회지도자들이 大學設立委員會를 구성하고, 1954년 4월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啓明基督學館을 설립하였다. 이 학관의 설립 목적은 “남녀 학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救主로 돈독히 신앙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좇는 국가 사회 및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敎育법에 의한 고등敎育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英語英文學科와 哲學科를 두었으며 118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수업이 시작되었다.

1955년 2월 文敎部로부터 啓明基督學校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학생 정원은 400명, 전임교수는 6명이었다. 그 해 8월 文敎部에 啓明基督大學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해인 1956년 2월에 인가를 받게 되니 비로소 숙원이던 啓明基督大學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설립 당시 4개 학과에 학생 정원이 480명이었다.

1961년 11월 啓明基督大學의 운영권이 宣敎會로부터 韓國 敎會에로 이양되었으며, 1965년 4월에는 교명이 변경되어 啓明大學이 되었다.

1966년에는 대학원, 1967년에는 敎育대학원이 설치·인가되었으며, 1974년에는 실험대학제도가 실시되도록 인가됨에 따라 본교는 量的으로 비약적인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1978년 3월 대망의 綜合大學校로 승격되어, 문과대, 경상대, 이공대, 예술대 등 4개 단과대학을 갖게 되었다.

종합대학교로 승격 이후 校勢는 더욱 확장되어 현재는 3개 대학원, 11개 단과대학과 25만권의 장서를 가진 중앙도서관, 박물관, 19개 연주소, 71만여 평의 校地, 627개의 병상을 지닌 의료원을 거느린 전국 굴지의 대학교가 되었다.

대학 규모의 확장과 더불어 교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방대학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임교수가 353명이며 그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09명이다. 학부 학생수는 54개 학과에 입학정원 4,214명으로서 현재 등록 제학생수가 14,000여 명이다. 대학원은 석사과정 31개 학과에 모집정원 390명, 박사과정 12개 학과에 95명이며, 敎育대학원은 21개 전공분야에 306명이다.

1899년에 설립된 東山病院은 1980년 啓明大學校와 합병되어 부속 동산의료원이 되었으며 현재 교수 81명, 병실 167실, 병상 627개로써 의학연구와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

II. 본교의 敎育理念

본교의 敎育이념은 선택 취지서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듯이 대한민국 敎育법을 존중하고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敎育 및 社會 지도자 양성이 그 요지이다. 이 선택정신은 일견 단순하고 용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정신과 대학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統合하고 均衡을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제에 속한다.

선교사들과 초창기 한국 敎育 지도자들은 啓明人들에게 기독교정신과 대학의 정신, 즉 히브리 정신과 헬라정신(신앙과 이성)의 공존과 통합이라는 어렵고도 야심적인 과제를 남겨 주었다. 啓明 30년사는 이 두 정신을 통합해 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환희와 고뇌를 기록하고 있다. 순기롭게 이 둘을 융합하여 균형을 지켜오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기도 했으며, 때로는 둘 다 동탄시키고 세속적인 야망에 매달린 우울한 기억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啓明의 敎育理念을 담은 敎훈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 드러났다. 즉 敎훈 속에 나타나 있는 말들이 聖書倫理(biblical ethics)의 언어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윤리언어인가 또는 둘 다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에 이르러 啓明人들은 성서윤리와 세속윤리의 두 차원에서 敎훈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眞理探究는 대개 새로운 지식과 사실의 발견과 더불어 그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召命意識을 포함해야 한다. 본교는 진리에의 헌신과 지식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일을 고취하기 위하여 敎育지표로서 ‘학문의 윤리성 양양’을 내걸고 있다. 본교의 敎育이념 중 정의와 사랑의 개념은 실천적인 것이다. 이 두 개념은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規準으로 사용되어 왔다.

정의와 사랑은 의미가 다양하지만 사용자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들은 본래적으로 가치를 지닌, 그 자체에 있어서 옳한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한다면 이 두 말은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굳이 論究한다면, 우선 孟子에서 라인홀드 니버에 이르기까지 많은 탐구자들이 강조해 온 이 두 개념의 相補的 관계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체로 어느 한 편에 치우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니버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두 개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응징적 정의 없는 용서는 우리들을 감상적이게 하고 용서 없는 응징적 정의는 실패를 가져온다.”

III. 본교의 特性

모든 대학은 연구, 敎수, 사회봉사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들은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특성을 보여 준다. 이 특성은 學問의 自由와 自律性의 정도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 자율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획일적인 인간, 획일적인 사회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대학과는 조화되기 어렵다. 解放 이후 우리의 社會史를 볼 때 자율성 민주적 절차, 자기훈육(self-discipline) 등의 가치들이 동탄시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가 비학자에도 영향을 미쳐 전통을 만드는 데 역기능을 발휘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본교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의 固有性을 위해 실험해 왔으며, 이들은 좋은 전통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1. 學生研究費 支給

본교는 실험대학제도를 채택한 이후 이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정규수업 이외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활용해 왔다. 敎양독서 이수제도, 학생연구논문제도, 미사장학생제도, 개방학습제도, 미사연구원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97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는 學生研究論文制度이다. 각종 장학금과는 별도로 敎수나 연구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인 연구논문과 공동 연구논문 계획서



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976년에는 학생지도연구소가 주관했으며 1977년 이후는 학생처가 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연구비支給狀況을 보면, 1977년에는 개인 연구논문과 공동 연구논문을 각각 10편씩 모집하여 총 325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고, 1978년에는 21편에 366만원, 1979년에는 31편에 524만원, 1980년에는 59편에 924만원, 1981년부터는 하계·동계로 나누어 164편에 1,757만원, 1982년에는 79편에 1,352만원, 1983년에는 61편에 1,114만원을 지급하였다.

연구비를 지급받은 학생논문은 교내에서 동료 학우들과 관계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여 優秀論文을 시상했으며, 전국대학생학술경연대회에 출전해 발표하게도 하여, 그 결과 1979년 12월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영예의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미성숙한 專門化의 길로 학생들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2. 자랑스런 中央圖書館

1958년에 개관된 본교 도서관은 1972년 3월부터 소장중인 한국어 도서에 한해 開架式 閱覽制

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0년 11월 연건평 5,392평의 지상 7층 지하 2층의 중앙도서관을 준공하였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3,200개의 열람식과 25만권(동서 16만 4천권, 양서 8만 6천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100만권의 강서를 소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열람실은 본교생은 물론 이웃 대학교의 학생들도 찾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교의 사서진들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논문집에 수록된 모든 논문들을 저자별, 주제별로 색인화함으로써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절약케 하고 있으며, 이 색인화된 분류 카드는 본교의 교수, 학생은 물론 여타 대학교의 교수·학생들에게 널리 개방되고 있다.

3. 協力大學의 擴大

교육과 연구의 活性化를 위하여 본교는 국내 타지역 대학교와의 교류는 물론 국제간의 학문교류를 적극 확대해 왔다. 호남의 名門 全南大學校와의 협력학교 협정 체결은 嶺·湖南간의 학문과 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1983년 7월에 이루어졌다.

국제간의 교류로는 1979년에 대한민국립사범대

학, 1982년에 일본의 모모야마학원대학, 미국 조지아주의 아트란타대학, 조지아주 대학시스템, 1983년에 미주리-캔사스대학, 오크라호마 주립대학, 서독의 보쿰대학 등과 각각 협력학교의 관계를 갖기로 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상의 공식적인 姉妹關係學校 외에도 본교는 일본의 학습원대학, 대관예술대학, 대관음악대학, 게이오대학,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의 워트워드대학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된 수의 교수·학생교류가 실시되고 있어 만족할 만하지 못하나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수·학생의 연구의욕을 높이고, 본교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력관계 대학을 더욱 개발할 것이다.

4. 成人敎育의 확대

大學과 地域社會는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특히 본교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며, 이를 잊지 못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본교는 지역사회 교육을 위하여 교수진과 교육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1971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主婦大學講座를 개설하였다. 대구직할시의 협조를 받고 있는 본 강좌는 현재 45期 2,3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한 主婦들에게 고급반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5기에 걸쳐 360명을 배출했다.

역시 대구직할시의 협조를 받아 1973년 新婦大學講座를 개설하였으며 현재까지 54期 8,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 두 강좌는 매일 3시간씩, 5주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市民倫理, 경제생활, 生活哲學, 인간관계론 등 사회생활과 自我成長을 위한 교과목을 강의받는다. 成人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방법은 강의와 토론 그리고 발표를 병용하고 있다.

1982년에는 大學公開講座를 개설하였다.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철학, 윤리학, 인간관계론, 영어, 일어, 컴퓨터 등 13개 과목을 개설하여 1주일에 3~4시간씩 12주 동안 실시한다. 교과목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과목 이수증을 수여하고 있다.

본교 成人敎育의 哲學은 성인 교양교육(liberal adult education)의 입장에서 있다. 훌륭한 사

회는 훌륭한 사회 구성원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학 정규교육과 非形式的인 교육인 성인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학습하는 사회(learning society)로 만들것자 한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사회교육연구소를 곧 확대·개편하여 사회교육원으로 만들어 일반 성인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도 담당시키것자 한다.

IV. 본교의 長期發展計劃

1978년 본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된 후 大學人口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명동 캠퍼스로서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교는 1979년 9월 경상북도로부터 달성군 성서면 파산동과 신당동 일대에 총 55만 2천평에 이르는 학교부지시설 승인을 받으면서 새 캠퍼스 造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9월 이공대학 건물을 기공하였으며 1983년 5월에는 본격적인 성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990년까지 완전히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선 건물면적 연 15만평에 총 투자 예산액으로 1,500억원이 예상된다. 完成年度에 이르던 15개 대학 107개 학과에 24,120명의 학부학생과 7개 대학원에 8,520명의 석·박사과정생을 갖게 되며, 교수요원 880명에 직원 600여 명 등을 거느리는 메머드 大學村이 될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이공대학이 작년 3월에, 인문과학대학과 외국학대학이 금년 3월에 각각 이전 완료하였다.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현 대명동 캠퍼스는 등산동에 이어 부설 의료원, 부설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로 활용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성서 캠퍼스는 교외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교육환경일 뿐만 아니라 대명동 캠퍼스와는 불과 8km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6차 간선도로로 이어졌기 때문에 늦어도 20분 이내에 통근이 가능하다.

이 마스터플랜은 본교로서는 거대하고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啓明人들은 지금까지의 저력에 비추어 능히 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전체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7천여 명의 同門들이 이 땅에 대학다운 대학을 갈망하고 있으며, 본교가 이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綜合計劃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현재 거 교적으로 예산 아껴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이 운동을 전폭 지지 하고 마음 다해 성원하면서도 먼 훗날을 위해 현재의 바램을 지나치게 유보시킬 수 없다는 여유를 갖는다. 오늘의 일꾼들이 그들의 땀흘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며, 현재의 재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常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學行政은 당연히 슬기로운 사람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한다. 모든 위원회, 모든 보직자들의 공공심(public mind)이 발휘되어야 하며 私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종합계획이 양적 팽창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가장 경계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들은 본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數値의 매력에 이끌리지 않고 啓明人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표시하려고 했다. 여기서 質的 向上이란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와 교육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사람들 중에는 이 둘 중 어느 한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個別科學의 훌륭한 연구자를 만들려는 노력과 全人(the whole person)을 만들려는 노력이 때때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지식의 진보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과 '교육받은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청이다. 그러나 후자는 어디까지나 지식의 진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立場이다.

연구 즉 知識의 進歩를 가져오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풍부한 연구비와 자료들을 마련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훌륭한 연구자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한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교수들을 위한 세미나, 교수·학생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자주 열도록 고무하겠다.

다양한 사고방식, 가치 있는 것에 입문시키려는 노력인 교육활동은 질리탐구를 계속하도록 하기 위한 입문도 포함하지만 가치 있는 것에 행동으로 헌신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신은 강의실을 통해서보다는 교수와의 非公式的인 사고실의 대화(common-room conversation)를 통해서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은 자신들의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이 잘 전달되어 다짐과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개인교수제도(tutorial system)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우리들이 지식의 진보 못지 않게 교육받은 사람의 양성에 관심을 쏟는 것은 본교의 교육이념에서도 잘 드러난 바와 같이 지식을 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그리하여 倫理的 卓越性이 본교 교육의 방향에 하나의 지표가 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본교가 교회관계 대학(church related university)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본래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게 하는 신앙, 풍부한 상상력 등이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전망을 넓히고 깊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도덕과 종교가 언어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행위와 관계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그 위에서 어제를 성찰하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설계하는 것이다.

全啓明人이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해도 지역사회의 협력 없이는 우리들의 장기 발전계획은 성취되기가 어렵다. 지역사회의 발전적인 성원과 협력을 회구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것을 얻으려면, 우리들이 사랑받는 일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태만하거나 무지하여 대학의 임무를 성실히 또 능히 감당하지 못할 때 지역사회는 우리를 외면할 것이다. 언제나 좋은 일로 그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성장하길 명심하고 있다. 그들도 우리의 장기적 발전이 양적인 것 위에 질적 교육(quality education)의 그것이길 염원하고 있음을 한 시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의 사랑과 자랑의 응시 속에 새로이 發展하는 啓明의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실 것이다. *